



전남 공보의 또 차출... '농어촌 의료공백' 어찌나

1차 23명 이어 2차 22명 4주 추가 파견...전체의 17%
의료취약지 읍·면·섬 고령 주민 불편 가중 우려 확산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전남지역 공중보건지소(이하 공보)가 추가 파견된다. 1·2차 파견으로 도내 전체 공보의 중 20% 가량이 자리를 비울 전망이다. 특히 의료 취약지인 전남지역의 경우 보건소·보건지소에서 근무하는 공보의 의존도가 높은 만큼 읍·면·동 고령 주민들의 불편은 가중될 수밖에 없어 자칫 농어촌 의료 공백으로 이어지는 것이냐는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 관련기사 6면

25일 전남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로부터 도내 공보의 중 전문의 3명, 일반의 19명 등 총 22명에 대한 파견 공문을 받았다. 파견 기한은 이날부터 오는 4월 22일 까지 총 4주 간이다. 차출된 공보의들은 중증·응급 환자의 의료행위를 담당하는 상급종합병원에 파견된다.

이번 공보의 파견은 정부가 지난 11일에 이어, 이날 2차로 60개 의료기관에 군 의관 100명, 공보의 100명 등 200명을 추

가 파견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파견한 인력을 포함하면 모두 총 413명이다. 현재 전남도는 일선 시·군과 차출 규모를 놓고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파견지와 보건소·보건지소별 차출 인원 등 세부 내용은 28일 발표할 계획이다.

앞서 전남도는 지난 4일과 11일에도 각각 1명, 2명 등 총 27명의 공보의를 4월 11일까지 서울 신촌세브란스, 서울 아산병원 등 일선 의료기관으로 파견했다.

시·군별로 담양·고흥·화순 3명, 나주·강진·해남·함평 2명, 순천·구례·보성·장흥·완도·신안 1명씩이다. 파견 공보의는 보건소 공보의 4명, 보건지소 공보의 19명이며 전문의 3명, 일반의 19명이다. 전문의는 모두 소아청소년과다.

이번에 차출된 인원까지 합하면 전남에 근무하는 전체 공보의 267명 중 45명, 즉 16.8%가 보건소·보건지소 업무를 맡지 못하게 된다.

문제는 공보의 차출이 농어촌 읍·면·동 도서지역 등 의료 인프라가 열악한



한산한 진료 접수처 의정 갈등이 장기화 되면서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의 집단 사직서 제출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25일 오후 광주 동구의 한 대학병원 진료 접수창구가 비교적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김애리 기자

의료 취약지의 의료 공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통상 보건소에는 2-3명, 보건지소에는 1명의 공보의가 근무하지만 공보의 지원자 감소로 전남도는 지난해 45개 보건지소에 공보의를 배치하지 못했다. 전남에는 각 22개 시·군별 보건소 1개소

씩과 보건지소 217개소가 있다. 앞서 1차 파견 때에도 전체 파견 인원 중 대다수를 보건지소 공보의로 채웠다. 이는 점을 감안할 때 기존 미배치 45개에 더해 차출된 공보의 수만큼 보건지소 의료 공백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1차 차출 때에도

전남이 의료 취약지인 만큼 복지부에 공보의들이 다른 지역으로 파견되지 않도록 해줄 것을 건의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 전남도는 공보의가 빠진 보건소와 보건지소의 진료 불편 해소를 위해 인근 보건소에 근무하는 공보의에게 순회 진

료를 하도록 하고, 원격 진료도 가능하도록 복지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오는 4월 11일 신규 공보의 충원 시점에 맞춰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하는 등 농어촌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양시원 기자

광주 청년당원 300여명 민주 탈당

"민형배 줄서기 정치" 비판...새로운미래 합류

총선 D-15

더불어민주당 광주 청년 당원 300여명이 집단 탈당했다. ▶ 관련기사 3·4·5면

민주당 광주 청년 당원들은 25일 오후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금의 민주당은 문제 해결 능력을 상실했다. 이재명 한 명을 위해 존재하고, 이재명을 위해서라면 민생도 내팽개치는 '친명패권' 정당일뿐"이라고 주장했다.

청년 당원 300여명은 1개월에 걸쳐 민주당을 탈당했고 새로운미래에 입당한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이날 민주당 민형배 위원에 대한 비판에 집중했다.

이들은 "민주당 경선에서 유일하게 민의원만 살아남았다"며 "광주에 헌신해서 가이던 권력에 헌신했기 때문"이라고 민후보를 직격했다. 이들은 또 "민의원은 당내 불통과 독선에는 침묵하거나 동조했을 뿐만 아니라, 권력자의 마음에 들기 위해 국회법을 무력화하는 위장 탈당 같은 꼼수도 마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새로운미래 이낙연 대표는 광주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정치인"이라며 "이 대표의 상식과 품격, 따뜻한 리더십과 오랜 경험이 광주 정치에 부족한 비전 제시와 꿈을 이루는 실력을 채워줄 것이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박성강 기자

무안국제공항, 서남권 거점공항 비상 '날갯짓'

전남도·무안군·제주항공·진에어, 정기 노선 취항 협약
4월 제주·중장가계·연길·日사가...5월 몽골 울란바토르

4월부터 무안국제공항 국제·국내 정기 노선 취항이 본격화하면서 서남권 거점공항으로 비상하기 위한 준비가 순조롭게 이뤄지고 있다.

전남도는 25일 무안군, 제주항공, 진에어, 한국공항공사와 함께 무안국제공항 정기 노선 취항 업무협약을 했다. 협약식에는 김영록 전남지사와 김산 무안군수, 김이배 제주항공 대표이사, 박병률 진에어 대표이사, 허주희 한국공항공사 글로벌사업본부장이 참석했다.

이들은 무안국제공항 국내·국제 정기 노선 취항과 활성화 등을 위한 이용객의 항공편의 증진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협약에 따라 무안국제공항 정기 노선은 제주항공이 4월부터 제주(주 4회), 중국 장가계(주 4회), 연길(주 2회), 5월부터 일본 사가(주 3회)를, 진에어는 5월 초부터 제주(주 2회), 몽골 울란바토르(주 2회)를 운항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해외 항공사의 경우 로알에

어플리핀이 무안-마닐라(4월부터 주 2회), 혼누항공이 무안-울란바토르(4월부터 주 2회), 라오항공이 무안-라오스(4월부터 주 2회) 노선을 운항할 예정이다.

그동안 전남도는 무안국제공항 정기 노선 유치를 위해 김영록 지사가 항공사에 대한 다각적이고 통 큰 지원책 마련을 지시하는 등 행정력을 집중했다.

실제 올해부터 국토 서남권 거점 공항인 무안국제공항의 정기 노선 유치와 노선 다변화를 위해 지금까지 지원했던 항공사 운항 손실금을 정기선 운항 장려금으로 개설했다.

항공사 운항 장려금 도입은 정기 노선 유치를 위한 것이다. 신규, 재운항,

증권 국제 정기선 운항 시 지원한다. 이는 지난해부터 국내외 항공사와 협의한 결과, 정기 노선 확보와 공항 활성화에 마중물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 이후 감소된 이용객 회복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김영록 지사는 "우리나라 저가항공을 대표하는 제주항공과 진에어의 무안국제공항 정기 노선 운항을 환영한다"며 "2개 항공사의 발전이 곧 전남의 발전이라는 마음으로 앞으로 더 큰 협력을 이어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재정 기자

Today

- 의대 교수 집단 사직 가시화 6면
- 우학소...동신대 태권도학과 9면
- KIA, 롯데와 홈3연전 전망은? 16면

제24회 광주매일신문 가족사랑 건강걷기대회

2024. 3. 30(토) 오전 8시 30분 | 광주광역시청 야외음악당

봄 기운을 느끼면서 올바른 걷기를 통해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한 일환으로 마련한 가족사랑 건강걷기대회에는 남녀노소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가족과 단체·동호회원의 참여를 환영합니다.

일시 2024년 3월 30일(토) 오전 8시 30분 ~ 오전 11시 40분

집결장소 광주광역시청 야외음악당

접수방법 광주매일신문 홈페이지 접수 또는 모바일 접수

접수마감 2024년 3월 28일(목) 오후 6시까지 ※ 현장접수 가능

참가문의 광주매일신문 사업본부 (062-650-2074)

참가비 무료

다양한 경품!

TV//공기청정기
자전거//선풍기
다양한 경품과
참가자 전원 기념품 제공!

걷기대회 모바일접수

주최 광주광역시체육상연맹
주관 광주매일신문·광주매일TV
후원 광주광역시교육청 (사)빛고을신문출판사
협찬 조선대학교병원 해양에너지 광주환경공단 전남개발공사 롯데백화점
광주광역시청